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성공할수 있는 이유 20가지



1. 내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내가 할 수 없겠는가? (빌4:13)
2.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부족하겠는가? (빌4:19)
3.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데, 왜 내가 두려워하겠는가? (딤후1:7)
4.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분량만큼 믿음을 주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데 믿음이 부족하겠는가? (롬12:3)
5. 여호와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할 것인데, 왜 내가 약하겠는가? (시27:1, 단11:32)
6.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데, 왜 내가 사단의 지배를 허용하겠는가? (요일4:47.)
7.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이기게 하시는데, 왜 내가 실패하리라고 생각하겠는가? (고후2:14)
8.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지혜가 되셨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여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게 지혜가 부족하겠는가? (고전1:30)
9.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신실하심과 소망이 있는데, 왜 내가 우울해져야 하는가? (애3:21~23)
10. 나를 돌봐주시는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데, 왜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겠는가? (벧전5:7)
11. 주의 성령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왜 내가 멍에 속에 있겠는가?(갈5:1)
12.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내가 정죄받은 것처럼 두려워하겠는가?(롬8:1)
13.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내가 외로워하겠는가?(마28:20, 히13:5)
14.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는데, 왜 내가 저주를 받았거나 불행한 희생자라고 느끼겠는가?(갈3:13,14)
15. 바울 사도처럼 내가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왜 내가 불만이 있을 수 있겠는가?(빌 4:11)
16.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나 대신죄로 삼으셔서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왜 내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끼겠는가?(고후5:21)
17.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는데, 왜 내가 박해를 받는 것처럼 피해의식을 갖겠는가?(롬8:31)
18.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지식을 주시는데, 왜 내가 혼란에 빠지겠는가?(고전 14:33,2:12)
19.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데, 왜 내가 실패할까 두려워하겠는가?(롬8:37)
20. 예수께서 세상과 세상의 환란을 모두 이기신 것을 알고나니 담대함이 있는데, 왜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민하겠는가?(요16:33)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삼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4권 9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3월 3일
☎520-9464/021-292-1639,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짚 계란



이 권사님은 상계동 재 개발지역 안에 있는 허름한 집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그 일대가 모두 그만그만한 집이라 달리 부끄러운 생각이 없었지만 다른 곳에서 누가 오시기도 하면 변변찮은 살림이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래서 심방을 미뤄오셨나 봅니다.

"권사님, 내일 갈게요"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갈게요" 하니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못하셨습니다.허리를 구부려 방에 들어 갔습니다.

여기 저기 정리한 흔적이 보이는 걸 보니 권사님도 심방을 기다리신 모양입니다.구역식구가 둘러앉기에도 비좁은 방이었지만 기분 좋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이 끝나기 무섭게 권사님은 부엌으로 나가셨습니다.

잠시 후 삶은 계란과 나박김치, 구멍가게에서 파는 빵을 접시에 담아 오셨습니다.

"대접이 소홀해서 어찌유"

적당히 삶아진 계란에서는 뜨거운 김이 났습니다.소금에 깨를 아끼지 않고 뿌리셨는지 계란에 잔뜩 깨가 붙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손가락을 담그며 나박김치를 떠먹었습니다.

드시는 것도 잊은 채, 맛있게 먹는 심방대원을 흐뭇하게 바라보십니다.

"다음에도 계란 삶아 주세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성도들은 썰물처럼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어찌나 빨리 나가는지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 하다보면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이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 계란 삶아 드릴게 또 오세유"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월간선한이웃-

주 일 예 배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7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7(시 16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141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이광희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4:1-13	인도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Couple's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누가와와 여행" -예수님의 시험-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512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도자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3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Tea Time	주일안내
3일	이광희	최재학	권용일, 김종건.	사카시다, 최기향
10일	이규입	권용일	김성국, 박일영	이종길, 송정남
17일	이기중	김교섭	양경배, 윤형권	박병민, 이기중
24일	이재영	김경숙	이광희, 이재영	이재영, 김경숙
31일	이지영	김동숙	이종길, 이종운	정덕수, 김순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달살뜰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12:00 | 수요일예배 7:30 pm | 금요일새벽기도: 6:00 | 아동, 학생, 청년부: 주일12시

교회소식

- 2002년 교회생활 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성경:엡5: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 당회: 4일(월) 저녁 7:30
- 구역예배: 이번주간은 구역예배주간입니다.
*구역장께서는 구역식구들에게 장소, 시간을 알려주세요
- Tea Time 시간에 제2남선교회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 교우소식
*이사하셨습니다: 박정자 집사(소민, 성렬) ☎130A Onewa Rd. Northcote ☎419-2600
- 축하합니다.
*결혼기념일 : ♡이재영, 김경숙 집사: 3월 3일 오늘이네요.
♡손승일, 윤하나 집사: 3월 7일.
♣아내에게 바치는 생애 최고의 칭찬
"당신과의 만남이 나를 더 좋은 남자가 되게 만들었소."
-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중에서 -
봄의 동화처럼 청순했던 순백의 신부! 가슴속에 영원히 담아주세요.
늘 행~~~~복하세요.
- 전도사님의 VISA 신청을 위해 우리들의 Signature가 필요합니다.
Tea Time 나누면서 Sign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사

<3월의 교회력>

	교회력	모임 및 행사	기념일
3일		당회(4일), 구역예배(8일)	
10일	식사친교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12일)	
17일		약속의 아버지 기도회(14일)	Day light saving finish
24일	종려주일(고난주간)	성금요일예배(29일)	학교방학(28일)
31일	부활주일	남선교회월례회	

엄마가 딸에게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인사 잘해서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종종 설거지를 하라.
설거지의 어려움을 알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묻히지 않게 될 것이다